



이상기후와 작물재해

송영순(괴산군의회 의원)

요즘의 농촌은 이상기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냉해, 우박, 과수화상병 등의 작물재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상기후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가 약 30년간의 통계적 평년값을 벗어나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말하며, 폭염(이상고온), 열대야, 한파(이상저온), 호우(홍수), 폭설, 가뭄 등의 현상이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며, 온도가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냉해는 봄, 여름 기온이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를 말한다. 기온 상승으로 과수나무들이 일찍 꽃을 피웠으나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꽃망울이 시들거나 열매가 기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박은 얼음결정이 강한 상승기류를 만나서 떠밀려 올라가서 수증기를 계속 흡수하여 점점 더 굵어진 채로 지상에 떨어지게 된다. 특히, 초여름의 우박은 작물들이 영글어가는 시점이라 농가에 아주 큰 피해를 준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 질병으로, 식물의 잎, 줄기, 열매 등이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으며,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폐기해야 하며, 확산속도도 빠르다. 겨울철 고온현상의 지속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있다.

냉해 피해와 관련해서 올 5월 열린 임시회에서 본인의 대표발의로 피해농가 신속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농작물 재해대책보험 제도의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대, 지역 특화 대응 대책 강구 등을 내용으로 농작물 냉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작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 개발 등 공통적인 대응 전략 마련뿐만 아니라 품목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제작, 철저한 예방과 면역력 증강(과수화상병) 등 각 작물에 특화된 전술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73.2%)에 이어, 18.4%가 농업·임업·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규제에 이어 농업규제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농장의 6%가 폐업을 해야 하는 수치이다. 뉴질랜드는 2025년부터 메탄, 탄소, 아산화질소의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농업과 임업에서의 가스 배출량을 최대 6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아산화질소는 대부분 화학비료 사용에서 발생한다. 농업생산력의 원동력은 화학비료였으나, 지표수 부영양화, 토양의 염류 집적, 토양 산성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미국의 2배, 캐나다의 3.4배에 달한다.

적정량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또한, 토양 비옥도 증가, 농작물 영양소 개선, 농산물의 맛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유기농 비료 사용 등 친환경농법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땅과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절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의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비전 제시, 정책 실행, 인식의 전환 및 실천 등 각 당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때다.